‘다윈지능’ ‘통섭의 식탁’ 최재천 지음

사회생물학의 창시자인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을 번역한 이후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통합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다윈 지능’ ‘통섭의 식탁’을 나란히 냈다.

‘개미제국의 발견’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 ‘과학자의 서재’ 등 그가 낸 책들은 대부분 2만부 이상 팔리며 과학저술가로서는 흔치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면서도 간결하고 재미있는 그의 글쓰기에 대중이 호응을 하기 때문이다.

다윈의 진화론·통섭형 인재 그가 푼 지식보따리

통섭학자 최재천 교수가 다윈의 진화론을 풀어 쓴 책과 자연과학, 인문, 사회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책을 소개하는 책을 함께 냈다. 사진은 강의하고 있는 최 교수의 모습. /연합뉴스

▲‘다윈 지능’=미국에서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인물 1000명을 선정·발표했는데, 다윈이 7위에 뽑혔다. 금속 활자를 발명한 구텐베르크가 1위를 차지했고, 10위권 안에는 콜럼버스, 마르틴 루터, 갈릴레이, 셰익스피어, 뉴턴 등 대부분 15~16세기의 인물들이 이름을 올렸다. 19세기에 활동했던 다윈이 10위권 안에 든 것은 진화이론이 단시간 동안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음을 뜻한다.

최재천 교수는 그동안 ‘종의 기원’ 해설서 등을 펴내며 진화론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그는 신간 ‘다윈 지능’에서 150여 년 전 태동한 진화론의 뿌리가 현대인의 삶 구석구석까지 줄기를 뻗어나갔다고 진단한다.

대표적 사례가 성(性) 선택 이론이다. 다윈은 저서 ‘인간의 유래’에서 성 선택권이 대부분 암컷 손에 쥐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는데, 이 이론은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하다. 거의 모든 생물종에서 구애 행동을 보이는 쪽은 암컷이 아닌 수컷이며, 이는 혼자서는 종족 번식을 할 수 없는 진화론적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혼도 이 논리로 설명된다. 저자는 “남성은 여성의 배란기 등 신체적 변화를 알아챌 수 없어서 한 명의 여성과 오랫동안 동반관계를 유지하려고 결혼 제도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윈의 이론이 동양 사상과 맞닿은 지점을 찾아냈고, 유전자가 후대로 이어진다는 진화 생물학의 원리가 불교의 윤회 사상과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다는 등 흥미로운 내용도 많다. 〈사이언스북스·1만5000원〉

▲‘통섭의 식탁’=최재천 교수의 또 다른 신간 ‘통섭의 식탁’은 통섭학자로 불리는 그의 지식이 담겨 있다. 저자는 “21세기 통섭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지식을 아우르는 기획 독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는 자연과학, 인문, 사회 분야를 아우르는 56권의 책에 대해 음식을 소개하듯 쉽게 풀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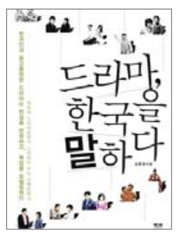
가령, 이어령의 수필 ‘젊음의 탄생’을 비롯해 생물학, 유전공학, 나중에는 정치학과 철학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소개한다.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자서전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스튜어트 올샨스키가 쓴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 등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삶의 지혜를 준다. 〈명진출판·1만5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드라마는 한국사회의 목격자이자 증언자

‘드라마 한국을 말하다’

김환표 지음



사람들을 만날 때 가장 쉽게 꺼낼 수 있는 대화 주제는 아마도 드라마일 것이다. 한국은 가히, 드라마 천국이라 할 수 있겠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드라마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청률이 50%가 넘는 ‘국민 드라마’가 탄생할 정도로 한국인의 드라마 사랑은 남다르다.

‘드라마 한국을 말하다’는 바로, 드라마에 담긴 한국의 시대상을 보여준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한 저자 김환표는 “드라마는 한국인과 한국 사회를 말하는 텍스트이며, 한국인과 슬픔·기쁨을 함께 나누며 한국 사회를 묵묵히 지켜본 시대의 목격자이자 증언자다”고 주장한다.

일제강점기에 첫 등장한 드라마는 식민지의 암울한 현실을 달래주던 ‘정신적 치료제’였다는 것이다. 특히 식민지 지배의 설움에 여성이라는 사회적인 짐이 더해져 속으로 피눈물을 쏟아내던 가정주부들이 드라마를 통해 대리만족을 느꼈다.

실제로 톨스토이의 소설을 극화한 ‘부활’을 방송할 때도 여자 아나운서가 생방송 중 슬픔에 겨워 울어버리는 방송 사고를 냈고, 청취자들은 그걸 사고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아나운서의 슬픔에 공감을 했을 정도다.

또 군부 독재시절에는 드라마에 저속 퇴폐의 멍에를 씌우고 반공드라마, 정권 찬양 드라마 같은 정치적 목적이 담긴 드라마를 제작할 것을 강요받기도 했다.

〈인물과 사상사·1만7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달력은 지배층 통치수단이었다

‘시간과 권력의 역사’

외르크 뤼프케 지음

드라마 ‘선덕여왕’을 보면 미실이 월식과 일식 날짜를 정확하게 맞춰, 백성들에게 공포를 주는 장면이 등장한다. 실제 기원전 2세기 고대 로마에서는 달력이 권력 통제의 수단이 됐다. 당시 권력자들은 장날과 민회가 겹치면 평민들이 몰려들어 정치적 목소리를 낼까봐 전전긍긍했기 때문이다.

독일 고전문헌학자인 외르크 뤼프케의 신간 ‘시간과 권력의 역사’는 이 같은 달력 속 비밀을 파헤친다. 저자는 달력의 기원과 발전 양상을 문화사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달력이 지배층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를 곳곳에서 짚어낸다.

기원전 287년 독재관 호르텐시우스는 아예 장날과 민회가 겹치지 않도록 달력을 손봤고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기도 했다.

고대 로마뿐만 아니라 근대 아시아에서도 달력은 위정자들이 애용하는 지배 도구였다.

1873년 일본 천황은 다음해 달력이 인쇄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레고리력 개혁을 단행했다. 윤달이 끼어 있는 1873년 관료에게 지급해야 할 한 달치 급료를 줄이려고 달력을 개정한 것이다.

역대 통치자들은 이 밖에도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축제일을 새로 지정하는 방식 등으로 권력을 강화해왔다고 저자는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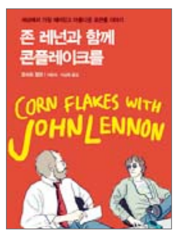
또 헬레니즘 시대 토성과 목성 등 7개 행성에서 따온 시간 체계에 유대교 안식일 제도가 결합하면서 일요일을 쉬는 날로 한 일주일 주기가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알마·1만85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화려한 무대 뒤 뮤지션들의 실제 모습

‘존 레넌과 함께…’

로버트 힐번 지음



엘비스 프레슬리, 존 레넌, 마이클 잭슨, U2, 아이스 큐브….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팝스타들과 인터뷰를 가져온 LA타임즈 음악 전문기자(1970년~2005년) 로버트 힐번은 미국 팝 음악비평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린다.

그의 첫책 ‘존 레넌과 함께 콘플레이크를-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재미있는 로큰롤 이야기’는 지난 30년간 가진 수백번의 인터뷰와 공연을 통해 쌓아온 뮤지션들에 대한 추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책에는 화려한 명성 뒤에 가려져 있는 인간적 번민과 철저한 고독과 불안속에서 음악 인생을 살아온 뮤지션들의 육성을 만날 수 있으며 다양한 노래가 탄생한 배경들도 담겨 있다. 세계를 놀라게 했던 재니스 조플린과 커트 코베인의 죽음 등 생생한 일화들이 독자들을 끌어들인다. 〈돋을새김·2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나꼼수 4인방 입담을 글로 풀다

‘나는 꼼수다’

김어준 외 지음

팟캐스트 세계 1위를 휩쓴 가카 헌정방송 ‘나는 꼼수다’를 종이책으로 즐길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는 ‘나는 꼼수다-에피소드 1’이 나왔다.

딴지일보 종신 총수 김어준, 17대 국회의원 정봉주, 누나 전문기자 ‘시사IN’ 주진우, 시사 평론가 김용민 등 4명의 입담이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은 ‘나는 꼼수다’의 1회부터 18회까지 모두 1718분 분량을 한 권으로 정리한 것이다.

책은 ‘각하의 꼼수’, ‘검찰의 꼼수’, ‘언론의 꼼수’, ‘명랑 꼼수’ 등으로 나눠 BBK사건을 비롯해 인천공항 매각, 청계재단, 부산저축은행 사건, 검찰과 장자연과 언론, 순복음교회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과 에리카 김 등 화제가 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유쾌하게 펼쳐진다.

〈시사인북스·1만3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왼쪽-오른쪽’ 상징, 예술가의 명작 속 수수께끼들

‘왼쪽-오른쪽의 서양미술사’

제임스 홀 지음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놀라운 작품이다. 전통적으로 오른쪽을 향하는 그림 속 예수와는 반대로, 이 작품 속 예수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왼쪽은 불길하다는 인식이 강했던 시대, 왼쪽을 보고 있는 예수는 하나의 도발이었다.

프리랜서 예술비평가이자 예술사가인 제임스 홀의 ‘왼쪽-오른쪽의 서양미술사’는 의미없이 지나갈 법한 그리스도의 시선 방향을 눈여겨봤다.

저자는 현대에 와서 과소평가되고 주목받지 못하는 ‘왼쪽-오른쪽’ 상징이 중세시대와 르네상스시대에서는 사회의 모든 부문에 스며든 중요하고 교묘한 표현 장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고전과 성서에 보이는 선악의 구분에서 시작해 르네상스 시기 몸의 왼쪽이 인정받고 무대의 중심에 섰던 시기를 거쳐 근대 계몽주의가 종교와 점성술을 공격하며 왼쪽-오른쪽 상징 자체가 약화되고 잊혀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저자는 왼쪽과 오른쪽의 상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분석했다.

왼쪽과 오른쪽의 풍부하고도 미묘한 의미를 찾아내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벨라스케스, 피카소 등이 남긴 명작의 수수께끼를 풀어낸다.

〈뿌리와이파리·3만3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간

▲인생은 짧고 욕망은 끝이 없다=파트리크 라페르의 장편소설. 프랑스 파리에 사는 번역가 루이, 런던의 유능한 증권중개인인 머피, 그리고 두 남자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사랑을 나누는 노라. 이들 세 남녀를 등장시킨 사랑 소설이다. 설정 자체는 극적이지 않지만 세 남녀의 서로 다른 사랑법과 이들의 욕망과 집착, 고통 등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민음사·1만3000원〉

▲템플스테이 in 택시=미국 텍사스주에서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다 파산한 후 택시운전을 하게 된 한 남자의 깨달음을 찾는 불교철학 에세이다. 직장의 파산과 실직이라는 큰일을 겪은 후 저자는 황폐해진 삶에 의미를 가져다줄 무언가가 필요했고, 우연히 불교를 접하게 된다. 생의 전환을 맞이한 후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고통스럽던 저자의 삶이 치유되고 내면이 풍요로워졌다고 소개한다.

〈리더스북·1만4000원〉

▲태초에 술이 있었네=음식문화학교 교장 김학민씨의 술술 넘어가는 술 이야기. 술과 안주, 술집, 술꾼 등 동서고금의 음주문화와 술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곁들였다. 전국에 사연 어린 술집들을 찾아다니며 쓴 일종의 술 답사기다. 분위기 좋은 술집과 맛있는 안주도 소개해준다. 또 우리 전통주의 역사를 되짚는 역사서이자, 현대 사회의 술 문화를 구수하게 풀어준다. 〈서해문집·1만5000원〉

▲브라더 선 시스터 문=‘밤의 피크닉’ ‘삼월의 붉은 구렁을’ 등의 작품으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한 일본 작가 온다 리쿠의 소설. 고등학교 동창인 세 친구가 각각 소설, 음악, 영화에 심취해 보낸 학창시절을 회고하는 형식이다. 미스터리와 판타지, SF 등 장르적 색채가 짙은 전작들과 달리 이 소설에서는 청춘의 내면을 담백하게 그려냈다. 〈문학동네·1만1000원〉

▲두려움없이 엄마되기=네이버 파워블로거 신순화씨가 전해주는 육아 이야기. 자연스러운 출산과 육아의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생명의 힘을 믿으며 조산원과 집에서 세 아이를 평화롭게 낳은 필자는 모유수유와 천기저귀를 선택했다. 약이나 병원의 도움없이 아이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믿고 기다리며 아이를 키우고 있다. 저자는 아이와 함께하는 그 순간을 마음껏 누릴 때, 아이를 키우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소개한다. 〈민들레·1만4000원〉

▲하해여관=젊은 작가 김성희의 장편소설. 항일단체 충의사를 설립한 이규락, 만주에서 학교설립운동을 주도한 이동하, 독립운동가 이병기 등 안동의 이씨 집안 3대 이야기를 그렸다. 보도연맹 사건으로 죽은 탓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도 못한 채 잊힌 이병기의 생애를, 그의 아내와 아들의 증언을 통해 되살린다. 작가는 이병기는 조선 독립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기꺼이 바치며 해방 후에도 살 만한 세상을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소개한다. 〈사회평론·1만5000원〉

어린이 책꽂이

▲코끼리 방귀=일러스트 작가 이형권씨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리리시리즈’의 세번째 권이다.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다 방귀를 뀐 리리는 진구로부터 ‘코끼리 방귀!’라는 놀림을 받는다. 진구가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떠들어댈까 리리는 진구 뒤를 몰래 뒤쫓기 시작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시공주니어·9000원〉

▲너의 용 이야기를 들려줘=영국 작가 재키 모리스가 뛰어난 상상력으로 창조해낸 환상적인 용의 세계가 담겨 있다. 전통적으로 용 이야기가 많이 전해오는 동양 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용은 인기다. 수메르 신화, 바빌로니아 신화, 그리스 신화, 북유럽 신화 등 다양한 신화와 설화에는 용이 빠짐없이 등장한다. 〈파란자전거·9500원〉

▲천천히 걷다보면=취학 전 어린이와 저학년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인성교육 시리즈’ 제4편. 문태준 시인의 잔잔한 문체가 곁들여졌고, 어린이가 화 자체를 인지하고 이해하며 화를 누그러뜨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소한 일로 친구와 다투어서 토라지거나 외로워하는 어린이를 도와주는 책이다.

〈불광출판사·9800원〉

▲나는 우리마을 주치의=일과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이해해가는 ‘일과 사람’ 시리즈 제6권. 환자와 의사가 아픈 사람과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서의 직업적인 관계를 떠나 이웃으로서 함께 건강한 삶과 마을을 가꿔 나가는 모습을 그렸다. 어린이들이 병원과 의사를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고, 부록에는 건강한 습관을 갖도록 돕는 정보들도 수록했다.

〈사계절·1만1000원〉

▲기분=기쁘고, 슬프고, 화가 나는 등의 다양한 사람의 감정을 알기 쉽게 풀어놓았다. 주인공은 친구가 가지고 온 노란 장난감 자동차가 멋있어 보이고, 그것을 뺏었더니 신이 났다. 또 엄마랑 병원에 가서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울음이 났고, 운 것 때문에 부끄러워 한다. 사람의 기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게 해준다.

〈한림출판사·1만1000원〉